

휴대폰, 스마트하고 커질수록 '손'으로

- 콘텐츠 소비, 모바일 지갑 등 스마트폰 역할 커져
- 남성은 상의 주머니, 여성은 가방/핸드백 애용

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피쳐폰 시절에 비해 이동 중 휴대폰을 손에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. 과거와는 달리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웹서핑이나 음악/동영상을 감상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, 사이즈가 커진 만큼 휴대 및 보관 편리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.

휴대폰전문 리서치회사 마케팅인사이트(대표 김진국)의 최근 조사(2013년 3~4월)에 따르면 이동 중 휴대폰을 휴대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'상의 주머니'에 넣거나 '손'에 드는 것으로 3명 중 2명이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있었다. 도보로 이동할 때는 '상의 주머니'에 넣는 것이 39%로 가장 많았으며, 버스/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이용 시는 '손'에 드는 것이 35%로 가장 많았다[표1].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되기 전인 2008년보다 '손'이나 '상의 주머니'에 보관한다는 응답이 버스/지하철 이용 시 23%p, 걷는 중 17%p가 늘어난 것으로 지난 5년간 휴대폰 휴대 행동에 큰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.

[표1] 이동 중 스마트폰 보관 장소

	버스/지하철						도보					
	13년 상반기		남성	여성	5인치대 스마트폰	그 외 스마트폰	13년 상반기		남성	여성	5인치대 스마트폰	그 외 스마트폰
	(3,241)	5년간 변화 (13상-08상)					(2,150)	5년간 변화 (13상-08상)				
(사례수)	(3,241)		(1,703)	(1,538)	(760)	(2,471)	(2,150)		(1,024)	(1,126)	(457)	(1,687)
손에 들고 있음	35 [✓]	+15 ⁶⁷	28	43	39 [✓]	34	25 [✓]	+8 ⁶⁴	14	34	29 [✓]	23
상의 주머니	32	+8 ²³	41	22	32	32	39 [✓]	+9 ¹⁷	44	34	40	39
가방/핸드백 안	17	-8 ⁻²¹	5	31	17	17	15	-11 ⁻¹⁷	4	24	18	14
바지/치마 앞주머니	13	-13	22	3	10	14	19	-6	33	7	9	22
바지 뒷주머니	2	0	4	1	2	2	2	0	4	1	3	2
벨트/허리	0	-1	1	0	0	0	0	-1	0	0	0	0
기타	0	0	0	0	0	0	0	0	0	0	1	0

Q. 000 중에 휴대폰은 주로 어디에 소지하십니까?

* 08년 상반기는 피쳐폰/13년 상반기는 스마트폰만 응답함

** 조사 시점(3~4월)의 옷차림(외투/겉옷 등)이 반영된 결과임

*** 5인치 대 스마트폰 : 갤럭시노트/갤럭시노트2/갤럭시 그랜드/옵티머스 뷰/옵티머스 뷰2/옵티머스 G 프로/베가 R3/베가 S5/베가 넘버6 포함

✓ : 주목할 결과

For more Information

문의: 박경희 부장 Tel. 02) 6004-7619, Fax 02) 543-5984 e-mail: parkkh@mktinsight.co.kr

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16-3 히아빌딩 4F Marketing Insight Inc. www.mktinsight.co.kr, www.panelinsight.co.kr

반면, '가방/핸드백'과 '바지/치마 앞 주머니'는 약 20%p 정도 줄어들었다(각각 21%p, 17%p). 즉 상당 수가 '가방/핸드백 안', '바지/치마 앞 주머니'에서 '손'과 '상의 주머니'로 휴대폰을 옮겨 소지함을 알 수 있다. 이는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을 활용할 일이 많아진 데다 디스플레이의 대형화로 하의 주머니나 가방/핸드백에 스마트폰을 넣어두기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. 특히 케이스에 카드나 명함 등을 보관하거나 교통/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등 스마트폰이 모바일 지갑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주머니나 가방에 넣기는 더욱 어려워졌다. 이런 경향은 5인치 이상의 대형 스마트폰 일수록 더 두드러졌다.

스마트폰 휴대 행동은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. 남성은 '옷 주머니'에, 여성은 '손'에 들고 다니거나 '가방/핸드백'에 넣고 다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. 주머니가 크고 많은 남성의 의복 특성과 주머니의 부족함을 가방/핸드백으로 커버하는 여성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.

한편 대다수(86%)는 현재 이용 중인 스마트폰을 떨어뜨리는 등 의도하지 않은 충격을 주는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 이들 10명 중 3명은 2주에 한 번 이상 이러한 상황이 있다고 응답했으며,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이 경험했다. 또한 남녀 간 스마트폰 휴대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남성은 옷 주머니에서 꺼내다가, 여성은 손에 들고 있거나 가방에서 꺼내다가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았다[표2].

[표2] 스마트폰 충격/낙하 행태

		성별 (%)		
		전체	남성	여성
스마트폰 이용자 (사례수)		(4,268)	(2,343)	(1,925)
충격/낙하 경험률		86	83	89 ✓
충격/낙하 경험자 (사례수)		(3,657)	(1,950)	(1,708)
충격/낙하 빈도	일주일 1번 이상	13	10	17 ✓
	2주에 1번 정도	17	16	18 ✓
낙하 경험자 (사례수)		(3,432)	(1,830)	(1,602)
낙하 상황 (복수응답)	휴대폰을 주머니에서 꺼내다가	59	62 ✓	56
	책상이나 테이블 등에 올려두었다가	41	38	45 ✓
	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손에 들고 있다가	38	33	43 ✓
	휴대폰을 가방에서 꺼내다가	30	17	44 ✓
	배터리를 교체하다가	24	24	24

Q. 현재 이용 중인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충격/낙하 상황을 경험하셨습니다니까?

Q. 휴대폰에 충격이 가해지는 상황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십니까?

Q. 다음 중 어떤 행동을 하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리게 되었는지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.

✓ : 주목할 결과

For more Information

문의: 박경희 부장 Tel. 02) 6004-7619, Fax 02) 543-5984 e-mail: parkkh@mktinsight.co.kr

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16-3 히아빌딩 4F Marketing Insight Inc. www.mktinsight.co.kr, www.panelinsight.co.kr

LG의 G2(5.2인치), 팬택의 베가 LTE-A(5.6인치) 출시와 함께 삼성의 갤럭시노트3(5.7인치)도 출시를 앞두고 있다. 최근 대화면 스마트폰을 일컫는 '패블릿(Phablet)'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는 등 스마트폰의 대형화는 한동안 대세일 것으로 전망된다. 대화면 스마트폰의 경우 이동 중 활용도가 높지만, 필연적으로 휴대성이 떨어진다. 손에 쥐고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어지고, 실수로 떨어뜨리는 경우도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. 따라서 낙하 위험과 외부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립감 및 UI 개선, 케이스의 개발 등과 함께 제품의 견고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.

For more Information

문의: 박경희 부장 Tel. 02) 6004-7619, Fax 02) 543-5984 e-mail: parkkh@mktinsight.co.kr

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16-3 히아빌딩 4F Marketing Insight Inc. www.mktinsight.co.kr, www.panelinsight.co.kr

[제 17차 이동통신 기획조사 개요]

- 조사명: 2013 상반기 이동통신 기획조사
- 조사기관: (주)마케팅인사이트(www.mktinsight.co.kr)
- 조사대상: 14 ~ 64세 휴대폰 보유자
- 조사내용: -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기 구매/사용행동, 만족도, 브랜드 선호도 등
 - 통화/제품 품질 평가 (경험품질)
- 조사기간: 2013년 3월 22일 ~ 4월 11일
- 조사방법: 온라인 우편조사(e-mail survey)
- 표본규모: 총 응답자 44,168명

위 조사 결과는 품질평가 전문 리서치 회사인 (주)마케팅인사이트(대표: 김진국)에서 2013년 3월~4월 실시한 '17차 이동통신 기획조사'로부터 발췌한 것입니다. 이 조사는 매년 2회 상/하반기로 나누어 4월과 9월에 실시되며, 매회 4만여명(2012년 하반기까지는 8만명 이상)의 이동통신 소비자가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이동통신 전문 기획조사입니다.

위 조사 결과는 사전 서면 허가 없이 상업적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Copyright © Marketing Insight. All rights reserved.

For more Information

문의: 박경희 부장 Tel. 02) 6004-7619, Fax 02) 543-5984 e-mail: parkkh@mktinsight.co.kr

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16-3 히아빌딩 4F Marketing Insight Inc. www.mktinsight.co.kr, www.panelinsight.co.kr